오늘도 사부대중이 만드는 '화엄세상' 빛난다

B1면에서 계속

없는 원소였으며, 그 원소의 근원지는 '부처님'이다.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독거 어르신 밑반찬 만들며 영그는 信心 / 노력봉사가 수행…"어르신 보길 부처님 같이"-

2000년 봉은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은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오정순(64 · 인하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참회기도가 이끈 시한부환자 洗髮봉사/ 입원 후 불자는 외톨이… "불교는 어디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14년째 활동하고 있는 그는 365일 중 320일을 와상환자 머리 감겨주기로 보낸다. 1주일에 120명의 환자를 만난다. 매일 아침, 세발도구를 끌고 병원 9층부터 17층까지 순회하며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준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에겐 환자도 부처다.

박범훈 작곡가 (70 · 조계종불교음악원 원장)

-우리 찬불가 찾아 나선 진감의 제자 / 佛心으로 시련 극복… "한국적 불교음악 완성 진력"-

국악이 '불교음악'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으며, 그 사실에서 출발한 음악가. 그래서 그는 우리 찬불가의 정체성을 찾고 찬불가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살고 있다. '붓다', '찬미의 노래', '부처님 오신날', '날마다 좋은 날' 등 우리 귀에 익은 찬불가가 그의 곡이다.

김춘식 불교문화 전문 해설사 (63 ·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

-성보에 담긴 佛心을 전하다-

'불교의 이해'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론 중 하나다. 그래서 불교와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알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20여 년 사찰과 사지, 그 밖의 도량에서 불교문화를 해설하며 전법의 길을 가고 있다.

오명숙 (60 · 조계종 자원봉사단 1기)

-"봉사는 수행"… 오늘도 묵묵히 '자비행' / "여법한 삶 사는 게 전법"-

1995년 창립된 조계종자원봉사단 탄생의 주역이자 1기 단원인 그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사내(寺內) 울력과 목욕봉사, 따주기봉사, 급식봉사, 호스피스 등 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군법당 불사 등의 군포교까지, 30여 년을 무주상보시와 이타행으로 살고 있다.

김행수(65) 영화감독과 **전무송**(77) 배우

-우린 '시네마 구법'하는 선재 도반 …"잘 만든 영화 한 편 전법이고 포교"-

오늘날의 전법은 미디어는 물론 예술과 학술, 교육 등 다양한 형식과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행수 감독과 전무송 배우는 '잘 만든 불교영화' 한 편을 위해 만난 도반이다. 둘은 "불교 창작물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청안 스님(52 · 헝가리 원광사 주지)

-한국 禪에서 '답' 찾은 헝가리 선재 … "헝가리에 한국 禪 전하고 있어요"-

헝가리 스님 청안 스님은 헝가리에서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스승이 그랬듯 제자는 헝가리에 한국식 전통사찰(원광사)를 짓고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갑숙 소설가(68덕 · 德山)

-불교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찾다 … "佛法이 주는 감동, 소설로 전하고 싶어"-

문학을 꿈꾼 지 50년, 그리고 마침내 소설 〈꺼지기 쉬운 빛〉으로 데뷔. 50년 만에 써낸 소설의 뼈와 살은 '체험의 불교'. 그가 체험한 불교는 어떤 것일까. 그의 소설이 궁금하다.

정분남(61 · 부산불교 삼보회 회장)

-반평생 신행의 키워드…'三寶守護', "포교는 수행이자 보살행"-

불법(佛法)에 귀의한 대중의 본분은 삼보수호. '삼보수호'를 신행의 평생 키워드로 삼은 그는 전국의 도량을 돌며 보이는 불사마다 손을 보태고 대중공양과 성불의 기도를 놓지 않고 있다.

이건열 동국대 야구부 감독(55)

-"야구도 인생도, 버리고 낮춰야 승리한다" /불교명상 통한 인성 함양, 바른 선수 양성 효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야구하는 이건열 감독은 동국대 야구부의 제2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공 하나, 타석 하나, 경기 하나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곧 번뇌가 된다. 그 번뇌를 벗어야 원하는 야구 할 수 있어"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프리마켓 자원봉사자

-'더불어 사는 삶' 실천하는 희망불자들…"진정한 봉사는 힘들 때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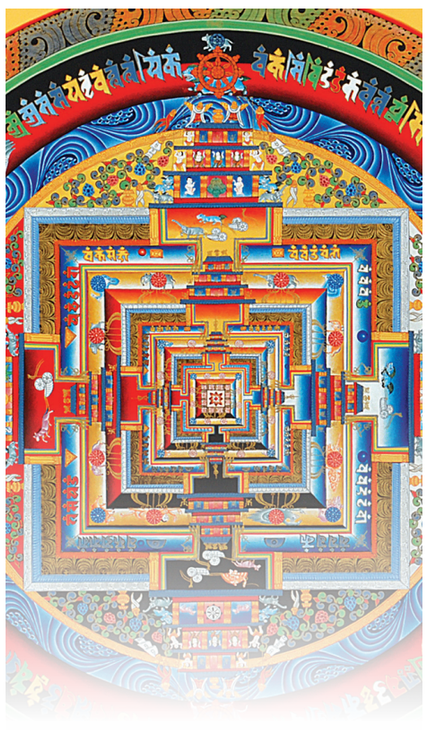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각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의 문제가 어려움이다. 평범한 주부, 피아노 학원 원장, 교사였던 그들은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다.

민병덕 前 국민은행장(65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三人行 必有我師', '돈'말고 '사람' 보라 / 相生, 성공의 지름길… "기업 · 조직 新성장동력 얻어"-

독실한 불자 금융인인 그는 현재 무보수로 핀테크 벤처기업 '올이프' 회장을 맡아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와 경륜을 사회에 회향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모두 만다라다. 풀잎 하나, 구름 한 점까지도 만다라 아닌 것이 없다.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다라임을 깨닫는 '오늘'이 만다라다.

사용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집수리봉사팀 팀장 (62 · 세기건축설비 대표)

-집수리 봉사하며 '마음 수리 바라밀'…"봉사는 저에겐 평생 '공부'였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는 봉사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 20여 년 어려운 이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었다. 3년 전부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집수리봉사팀 '천수천안회'를 이끌고 있다.

문명대 교수(77 · 한국미술사연구소장 ·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미술 집대성 · 유적 발굴 선도한 개척자

'불교미술'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어온 그는 후대를 위한 수많은 이정표를 남겼다. 오늘날 우리 불교미술사학의 체계는 그의 부지런한 발과 손에서 만들어졌다.

장준동 변호사(57 · 법무법인 동연 대표)

-함께 사는 세상 꿈꾸는 '밥퍼 변호사' / "무고한 사람 없도록 최선"… 봉사는 나의 삶-

밥 짓고, 밥 나눠주고, 연탄, 김치 배달하는, 일명 '밥퍼 변호사'. 그는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법정 밖에서도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닌다. 그대는 자비보살.

유억근 (사)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가족

-삼보회 인연 만다라 30년… 在家운동 '견인'… "출 · 재가 본분 다하면 갈등 없어"-

재가불교의 1번지 (사)대한불교삼보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부처님의 길을 밟는 선남자이다. 그 곁에는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레의 바퀴처럼 굴러간다.

일광 스님(거창 삶의 쉼터 관장)

-지역민의 '休' 같은 '쉼터' 복지관장 / "출 · 재가 더 많이 '사회참여' 해야"-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상구보리하화중생하는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위로'를 만들어간다.

희곡작가 **김숙현**(75) · 기업인 **배기수**(80) 부부

-佛緣만나 평생 '부부 도반'으로 … "말 두 마디에 불교 이야기 나오죠"-

한 생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빛깔은 달라진다.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에 도반의 인연을 더해 살고 있다. 각자가 지닌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허락 사경가 (71 · 고려사경문화원 원장)

-수행 · 전법 꽃 피운 250만 자 금빛 사경…"5mm 글자 안에 부처도 자신도 있어"-

사경의 공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화엄경〉 절첩본 81권 3회, 〈법화경〉 7권 7회, 〈금강경〉 80여 회, 〈지장경〉 2권 5회 사성. 30여 년 사경 공덕, 더욱 주목할 것은 그것이 모두 '금사경'이라는 것.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

-불교 교육 40년… 校庭의 '호법신장' / "인문학 활성화로 불교 발전에 여생을"-

그의 법명은 법해(法海)다. 불교의 정법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다. 신심 넘치는 교법사로, 종립학교 교사로, 불교계 환경운동가로, 또 역사교과서 등 잘못된 불교인식을 바로잡는 학자이자 불교 지성인으로도 그 역할이 컸다.

서우담(81 · 교림출판사 대표)

-여래의 아난, 탄허의 우담 / 탄허 저술 출판 매진… 스승 가르침 세상에 알려-

석가모니부처님 곁에 아난이 있었다면 탄허 스님의 곁엔 우담이 있다. 그는 스승의 방대한 역경불사를 보다 많은 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오로지 스승의 역경만을 출간하는 교림출판사를 세웠다. 또 하나의 칠엽굴이다.

마가 스님(57 · 현성정사 주지, 자비명상 대표)

-상처난 마음 찾아가는 '힐링 멘토' - "자비명상, '선업 쌓는 법' 깨닫는 수행"-

연기(緣起)에 일찍이 눈뜨고 대중의 마음을 살펴온 스님은 '힐링'을 일찍이 부처님의 글자로 시작했다. '자비명상'이라는 수행법으로 대중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마음에 불법(佛法)을 심고 있는 것으로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

아남툽텐 린포체(다르마타 재단 설립자)

-생활 속 마음챙김, 행복의 지름길 / 수행 통한 '자비' 발현, 사회 갈등 해소

티베트불교는 오래 전 서구에 널리 전파됐다. 이제 한국에도 티베트불교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 선봉에 아남툽텐 린포체가 있다.

부산 영도 대원사 ·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음성공양으로 하모니 일구는 선재도량…어린이 합창단으로 포교 새바람 주역-

수월관음도의 한 쪽에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선재들로 가득한 도량이 있다. 그 아이들은 불연의 씨앗들이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절에 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절로 이끈다.

안양소년원 봉사단체 안양계

-'소년부처' 키워낸 교정교화 어벤져스 / 교정전법 지원 절실… "불교 쉼터 필요"-

어느 시절 어느 곳이든 '소년'은 힘들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소년들이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지만 그렇지 못한 소년들도 있다. 그 소년들을 위해 나선 스님들이 있다. 스님들은 '안양계'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정교화의 어벤져스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66)

-초기불교 한글 역경 견인한 '21세기 구마라집' / "초기는 나무 · 대승은 꽃… 佛法 구조 알아야"-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한국불교는 변화를 맞는다.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다. 초기불교 경전이 우리말로 역경 · 발간되기 시작한다. 현재 대중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말 초기불교 경전은 한 사람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전재성.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80)

-다시 부처님 시대 꿈꾸는 영원한 전법사 / '청보리' 운동 이끌며 포교…"진짜 불교 해보고 싶다"-

1970~1980년대 청소년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청보리' 운동으로 포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는 이제 다시 부처님의 시절을 꿈꾼다. "불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우리도 붓다 석가모니의 일생 그대로, 진짜 불교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